

이 지면은 매월 발간되는 새 책 소식을 독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불황의 출판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최초의 현대 화가들**

최초의 현대 화가들을 만든 최초의 그림들. 현대미술의 지평을 연 12인의 예술가, 한 점의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는 그들의 내면세계와 현대미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피콜로 피카소,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르네 마그리트, 바실리 칸딘스키 등이 실려 있다.  
다카시나 슈지 지음 / 권영주 옮김 / 아트북스 발행



**자연을 사랑한 화가들 - 밀레와 바르비종파 거장들**

바르비종파, 밀레와 대표되는 이 미술유파는 도시화된 파리에서 사라져버린 자연을 찾기 위해 약속이라도 한 듯 바르비종이라는 지역에 모여든 화가들을 일컫는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술을 이야기하고 자연을 찬양하며, 풍경화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김영숙 · 노성두 · 류승희 지음 / 아트북스 발행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의 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1929년 벤아민이 초현실주의에 대해 쓴 글을 언급하고 조르주 바타유, 자크 리랑, 에른스트 블로흐, 그리고 미술사가 등의 시각을 적극 도입하여 저자의 관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할 포스터 지음 /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옮김 / 아트북스 발행



**오늘의 예술**

누가 시대를 창조하는가. 현대 일본 미술의 선각자인 저자의 아방가르드 예술론이자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현대 미술사 입문서. 예술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예술에 대해 갖는 부담감과 오해, 편견을 비롯해 현 예술의 실태를 다양한 범주로 풀어나고 있다.  
오카모토 타로 지음 / 김영주 옮김 / 놀와 발행



**중국 근현대 미술**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다양한 미술 분야의 근대화 과정을 비롯하여 현대중국화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 서구 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유입과 그에 따른 충돌과 모순, 그리고 전통의 가치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전통이 갖는 의미의 고찰 등을 보여준다.  
낭소군 지음 / 김상철 옮김 / 시공아트 발행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표정이 있다**

이 책은 포토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를 두루 취재하며 찍은 사진들과 인문적 향취가 배어 있는 글 스토리 편이담김 에세이집.  
이상엽 글 · 그림 / 도서출판 동녘 발행



**20세기 미국 아방가르드 시각영화**

1943-2000년까지 미국 작가주의 영화들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 역사서인 아담스 시트니의 'Visitory Film'을 국내 최초로 체계적으로 소개한 실험 영화인 4인반동현, 손광주, 허정경, 김계중이 번역한 것으로 '산업 시스템'으로서 공장 생산형 영화에 익숙해 있는 국내 영화계에 '시각적 상상력'을 목적으로 한 작가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담스 시트니 지음 / 박동현 등 옮김 / 평사리출판사 발행



**유럽음악축제 순례기**

정신과 전문의이며 클래식 음반 전문매장 풍월당의 주인장인 저자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의 18개 음악 축제를 소개한다. 각 축제의 공연 티켓 예약과 헌팅의 노하우, 축제도시 주변의 숨은 볼거리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박종호 글 · 사진 / 한길아트 발행



**사랑과 죽음의 교향곡**

말러의 음악은 음악기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들에게도 관심과 연구대상이었다. 그의 교향곡을 분석한 저술 가운데에서도 열여덟 살에 말러를 만나 평생 그의 벗으로 음악적 동료로 자란 발터의 이 책은 인간 말러를 가장 가까이에서 증언해주고 있다.  
브루노 발터 지음 / 김병화 옮김 / 마티 발행



**팔죽 할머니**

놀면서 읽는 책 - 우리나라 아동극 선집 세번째 시리즈 권정생, 이원수 등 현대 작가의 작품,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극본으로 활용하기 부담이 없도록 편집디자인을 하였으며, 무대장치, 등장인물의 분장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권정생 · 주평 등 글 / 임지연 엮음 / 김수현 그림 / (주)우리교육 발행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이 책은 한국문학 공간과 현장을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과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문학공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문학공간을 디지털콘텐츠화 하고 이를 문학답사나 문학여행 등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산업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복 편저 / 청동거울 발행



**한국문학콘텐츠**

이 책은 문화콘텐츠의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을 한국문학 콘텐츠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4부로 나눠져 문화콘텐츠와 한국문학, 고전문화콘텐츠, 현대문화콘텐츠, 시이론문학을 다루고 있다.  
우정권 편저 / 청동거울 발행



**정보의 승배**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컴퓨터 기술의 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해 주고, IT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컴퓨터문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해 심도 있게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끔 만든다.

시어도어 로작 지음 / 정주현 · 정연식 엮음 / 현대미술사 발행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꼭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는 12가지 방법.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도록 나를 만드는 법과 내 이름을 간절히 불러주는 곳을 찾는 법을, 그리고 회사와 팀 구성원들의 이름을 불러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쿠가와 모토 지음 / 글썬리 발행



**김선우의 사물들**

자유로운 상상력과 도발적인 표현으로 주목 받은 시인 김선우의 두 번째 신문집. 사물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에 대해 시인이 갖는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시인듯 잠언인듯 오래 생각하며 음미하게 한다.

김선우 지음 / 놀와 발행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탈무드 123가지 지혜와 자치 그리고 유머가 듬뿍 담긴 탈무드 탈무드 중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이야기 123가지가 실려 있다. 간결하고 쉬운 단어와 문체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다.**

한국어린이문화연구원 엮음 / (주)영림카디널 발행



**원교와 창암 글씨에 미치다**

한국화의 거장 아산 조방원 선생은 40년 동안 소장해온 이 유묵을 독자들과 함께 감상하고 능숙하기 위해 세상에 내놓았다. 원교의 글씨는 자취가 건강하고 훌륭하며 기상이 웅장하고 빼어나다. 창암은 붓놀림이 신묘하여 몸돌비를 모를 정도다. 두 대가의 글씨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희귀본.

한얼미디어 발행



**준비됐나요?**

아이들에게 몸에 있는 생식 기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 주는 것과 시춘기에 접어들면서 변화되는 자신의 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카렌 그라벨, 제니퍼 그라벨 글 / 박상민 그림 / 최미경 옮김 / 책그릇 발행



**만해의 시오 십현담주해**

만해 한용운의 한시, 자유시, 시조 등 만해의 시 모듬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모든 시의 사상적 기초가 선의 세계임을 밝혔으며, 이런 입장에서 그의 시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배경이 '십현담주해'임을 80년 만에 최초로 밝힌 저서이다.

김광원 지음 / 바보새 발행



**김소월 시집 - 엄마야 누나야 윤동주 시집 - 오줌싸개 지도**

김소월과 윤동주의 시 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일맞은 시 각각 40편과 50편을 가려 그림과 함께 엮었다. 당시의 언어는 지금의 말로 고쳤으며, 어려운 말은 뜻을 이를 하였다. 시마다 해설을 곁들여 시가 지닌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소월 · 윤동주 시 / 이창건 엮음 / 효리원 발행



**만해 한용운의 풀뿌리 이야기**

좋은 문장은 시공을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한용운의 문장은 특이하고 기이한 문장이 아닌, 그저 평범하면서도 가장 적절하고 간결한 문장에서 그의 뜻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용운 지음 / 립효림 옮김 / 바보새 발행



**아빠에게 돌던지는 아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몫의 역할이 있음을 알면 차별할 일도, 차별받을 일도 없다.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떠뒀한 곳으로 만들어 준다는 기습적인 깨달음을 안겨 준다.

고정욱 글 / 박지훈 그림 / 중앙출판사 발행



**레메디오스 바로, 연금술의 미학**

스페인에서 태어나 멕시코에서 주로 활동한 초현실주의 여성미술가. 꿈과 환상 미법의 세계를 탐구한 그녀의 글과 그림들의 독특한 매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녀가 직접 쓴 텍스트와 대표 작품들을 통해 꿈과 상상, 연금술의 세계로 초대한다.

레메디오스 바로 지음 / 탁인숙 · 함은주 옮김 / 다빈치 발행



**우리 엄마는 여자 불량카**

아빠의 재혼으로 베트남인을 새엄마로 맞게 된 하나의 이야기. 맘씨 곱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엄마를 무척 좋아했지만, 친구들이 이 여자 불량카라고 놀리자 깊은 상처를 받는다. 깊어지는 갈등 속에 인권 운동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지렁이처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

원유순 글 / 원유미 그림 / 중앙출판사 발행